

미·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박정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선임연구위원
jounhopark@kiep.go.kr

강부균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위원
bgkang@kiep.go.kr

현승수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hyunss@kinu.or.kr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shjeh@hufs.ac.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미·중·러 전략경쟁의 본격화와 갈등의 심화 속에서 러·중 간 전략적 관계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작업 진행
 -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방향과 의미, 분야별 협력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을 분석
- ▶ 21세기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의 악화는 러·중 정치, 외교, 군사적 밀착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정상은 2019년 ‘신시대 러·중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포
 - 양국은 탈냉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관계는 푸틴과 시진핑 집권기에 전방위적으로 확대
 - 현재 러시아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분야인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며, 양국은 경제안보 인식과 글로벌 다극 경제질서 구축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일치
- ▶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6월 ‘신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문화 관계 발전을 우선 방향 중 하나로 규정
 - 양국은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학술·교육, 문화·예술, 대중매체, 관광, 체육, 보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 관계의 핵심인 인문 교류와 협력을 도모
- ▶ 새로운 국제환경에 부합하는 북방정책의 추진 방향 제시
 - ‘중추적 중견 국가’의 대외적 위상 확보를 위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전략적 차원의 국익 설정, 북방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북방지역 대상 협력 방안 발굴 및 협력 체계의 개선작업 진행 필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력과 비서방 세력(러시아와 중국 등) 간의 진영화 및 블록화에 기초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3자 관계의 구조적 성격과 동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
 -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방향과 의미, 분야별(정치,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 러시아와 중국 간 주요 분야별 협력 방향과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진행하면서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외교·안보 관계 발전 배경과 전략적 의미

① 새로운 전략적 삼각관계 형성 가능성

- 21세기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의 악화는 러·중 밀착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
 - 미국, 중국,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삼각관계는 반세기 전 작동했던 삼각관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 강대국의 역량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구조와 성격도 그 당시와는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임.
 - 이는 네 가지 측면(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통합성 강화, 냉전 이후 역할이 축소되었던 군사동맹의 활용성 증대, 새로운 전략적 삼각관계의 성격 변화, 이념의 역할과 중요성 변화)에서 설명할 수 있음.
 - 최근 러·중 관계에서 정치와 군사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국제안보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이며, 과거와 현재의 새로운 삼각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른 결정적 요인 중 하나

②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외교·안보 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정치·외교 분야

- 집권 3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례적으로 잦은 정상간 만남을 통해 권위주의 연대를 강화해나갔다는 점에서 2012년은 러시아와 중국 간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협력 관계가 시작된 해
 -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서방으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되자 러·중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으며,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맞은 2019년 두 나라 정상은 '신시대 러·중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포

표 1. 2019년 공동성명에 명시된 정치 및 안보 분야의 협력 내용

정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 상호 방문, 국제 행사에서 양자 회담, 전화 회담, 서신 교환 등을 통한 양국 정상간 긴밀한 접촉 유지 • 무역·경제, 투자, 에너지, 인도주의, 지역간 교류 영역 협력을 위한 양국 정부간 위원회의 미래 효과적 업무 계획 및 촉진을 위해 러·중 정부 대표의 정기 회담 메커니즘 이용 극대화 • 양국 입법부의 고위급 접촉 유지, 폭넓은 의제의 전방위적·다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의회간 교류 및 우호 그룹간 대화 형식 이용 • 러시아 대통령 행정부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구 라인을 통한 양국 접촉 채널 유지, 국가 원수간의 접촉 보장 및 양자간 합의 이행 촉진을 위한 채널의 역할 증대, 러시아 대통령 행정부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구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 • 러시아 주요 정당들과 중국 공산당 간 정기적인 접촉 유지, 각자의 정체성 보호, 상호 존중, 경험 전파 등 공통점 탐색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당간 관계 구축 노력
안보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안보 협의 메커니즘을 이용한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 강화, 상대방을 향한 무력 사용의 단호한 저지, 긴밀한 접촉 및 조정 유지,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를 위한 상호 지원, 발전의 개념 및 방법·국가 관리 경험·권력 기관 강화에 관한 대화 지속 • 양국 국방부 및 군대 간 전략적 접촉 증대, 군사기술 분야에서 군사적 신뢰와 협력 심화, 합동 군사훈련 실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메커니즘 개선, 새로운 수준의 양국 군 관계 기여 • 공공 안보, 사법제도, 사법 질서 부문에서 러·중 협력 메커니즘 개선, 사법 질서 및 안보 문제에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양국 상호작용의 계획, 조정, 공동 추진 실현 • 대테러 조치에 대한 건설적 협력과 조정 강화, 유엔 중심의 단일 글로벌 대테러 전선 형성 촉진,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와의 대결에서 이중 잣대 반대 • 반 미약 분야의 경험 교환 및 실질적 협력과 상호 협력 메커니즘 강화 등 • 국제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접촉 확대, 중요 정보 인프라의 보안 및 지속가능성 보호 조치 강화 등 • 양국 국경 조직간 국경 협력 및 상호작용 발전, 국경의 영토 불가침,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에 관한 국제법 원칙 준수

자료: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2019. 6.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9. 2) 바탕으로 저자 정리.

● 군사·안보 분야

- 2021년은 러시아와 중국이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주년이 되는 역사적 해이며, 두 나라는 단순히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 및 강화해나가는 관계를 넘어서서 군사적 동맹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국제 여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음.
 - 러시아에 중국과의 군사적 연계는 긴 육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대등한 국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며, 이전에 비해 국력이 축소된 러시아

는 미국 및 서방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과도 관계가 악화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에 러시아와의 군사적 연계 강화는 시진핑 주석이 공들여온 군 개혁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며, 중국군으로서는 러시아 군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군 개혁에 필요한 러시아군의 경험 공유 및 우수한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음.

● 러·중 관계의 미래를 규정하는 상수와 변수

- 두 나라가 4,000km 넘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 에너지 수출국 러시아와 수입국 중국 사이에 형성된 상호보완성, 양국 모두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 문제에 민감하고 영토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점 등은 미래의 러·중 관계를 규정하는 상수
- 변수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성장 속도, 그에 따른 러·중의 격차 확대 등임.
 - 양국이 이 변수들을 제약 요인이 아닌 기회 요인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노력할지가 핵심 관건임.

2)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통상·산업 관계 발전 배경과 전략적 의미

① 러시아의 경제안보 인식과 대중국 경제 관계 심화 배경

● 2010년대 중반 들어 본격화한 미·중 경쟁, 2014년 크림반도 사태에 따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유가 하락,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러시아가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작용

-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 미·러 갈등이 더욱 첨예화됨에 따라 러시아는 다각적인 경제적 위협과 도전에 직면
 - 러시아는 경제안보를 곧 국가안보이자 경제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2022년 6월 제25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환영사에서 “러시아에게 2020년대는 경제주권을 강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자체 인프라 및 기술,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의 발전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제시

②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협력 주요 내용과 특징

● 첨단기술 분야

- 2018년을 전후해 본격화된 미·중 기술경쟁은 러시아와 중국이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모멘텀이 되었는데, 2014년 이후 기술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러시아와 미국의 제재로 자체 기술역량 개발이 긴요해진 중국 간에 전략적 이해가 증대된 것에 기인
 -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6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명한 ‘신시대 포괄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2020~21년을 ‘러·중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의

해'로 선언

- 양국은 '2020~25년 러·중 과학, 기술 및 혁신 로드맵' 채택을 토대로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인공지능(AI), 무인운송 시스템, 신소재 및 나노기술, IT, 신(新)에너지원, 에너지 절약 기술, 친환경농업 기술, 해양 기술, 맞춤 의학, 바이오 기술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선정

● 에너지 분야

- 러시아의 대중국 에너지 협력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를 기점으로 금융을 비롯한 제조업,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꾀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
-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 8월, 10년을 끌어온 양국 공통의 숙원사업인 시베리아의 힘(PoS) 가스관 사업에 합의하고(2019년 12월 개통), 2014년부터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 등 중국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 북극 LNG 프로젝트(야말 LNG 및 북극 LNG-2)의 지분 인수 및 LNG 도입 계약, 석유화학 사업 투자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

표 2. 2014년 이후 러·중 에너지 협력 방향과 특징

협력 목표 및 방향	<p>□ 전방위적이고 일체화된 협력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산업은 금융, 제조업, 서비스업 등 수많은 연관 산업을 포괄 - 양국간 비교우위 활용,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추구(러시아의 우위는 자원, 중국의 우위는 연관 산업 발달)
에너지와 금융 일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측은 러시아의 석유·천연가스 업스트림 기업 지분 인수 후 주주기업으로서 용자서비스 제공을 전담(야말 LNG 프로젝트의 경우 중국 측이 모든 용자를 담당) ->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용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하려는 움직임 심화 -> 러·중 간 탈달러화 추진도 에너지 교역에서 달러 결제 비중을 줄이고, 본국통화 결제 비중을 늘림으로써 양자간 보다 원활하고 편리한 에너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목적
에너지와 제조업 일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천연가스 협력은 첨단 해양공정제조, 주입설비, 정밀 측정기기 및 특수 파이프 소재, 전용 선박 제조 등 다양한 제조업과 연관되어 있음 -> 중국의 많은 관련 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입. 중국이 만든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서방의 대러 첨단기술제품 수출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에서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보유
에너지와 과학기술 일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중 석유·천연가스 대기업들은 모두 강력한 과학기술 R&D 능력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 혁신 선도능력과 원천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일부 핵심 기술, 특히 고급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기술이 부족 -> 핵심 석유·천연가스 장비기술의 경우 서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제재(기술 접근 제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러·중 과학기술 협력 강화 필요(과학기술 R&D 공동체 구축 목표)

자료: 박정호 외(2021),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흥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pp. 92-93.

-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은 러·우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4일 중국 CNPC와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천연가스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제재가 심화됨에 따라 노드스트림 2 가스관(러시아-독일 연결)을 대신해 시베리아의 힘(PoS) 2 가스관 추진에 초점을 두면서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 확대를 도모

● 금융 분야

-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달러화 및 연계 결제 시스템의 정치적 활용에 대응하고, 금융안전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공통된 이익을 추구
 - 2022년 9월 푸틴 대통령은 탈달러화가 일종의 안전 쿠션(safety cushion)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탈달러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역설한 바 있으며, 중국을 달러화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협력국으로 간주
 -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21년 12월 제3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으며, 2022년 1월 유리 우샤코프 외교 보좌관은 러·중 간 루블·위안화 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독자적인 금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러시아와 중국은 2022년 9월 천연가스 대금 결제 수단을 달러에서 루블 및 위안화로 대체하는 데 합의

3)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문화 관계 발전 과정과 전략적 의미

① 신시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이해

- 2001년 7월 '러·중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왔음.
 - 2019년 6월 5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인문 교류', 다시 말해 사회·문화 관계 발전을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 발전의 우선 방향 중 하나로 규정
 - 양국은 사회·문화 관계 발전 차원에서 '대대로 이어진 우호의 전통 유지, 국민간 우호 관계 강화, 러·중 문명의 계몽과 풍요 촉진'을 목표로 다각적 조치를 시행

표 3. '신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성명'에 명시된 사회·문화 관계 발전 관련 합의사항

차원 및 분야	합의사항
거버넌스	- '러·중 인문 협력위원회의 조정하에 인문 분야 양자 협력 발전에 관한 행동계획 수행 - 공공 교류의 주요 채널로서 '러·중 우호·평화·발전위원회를 계속 활용
학술·교육	- 교사·학생의 학술 교류, 원격 교육기술 이용을 포함한 러시아어·중국어 학습, 일반·중등 직업 및 추가 교육 분야 공동행사 개최, 청년 교류와 같이 인문 협력 분야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활동 가속 - 양측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양국 대학생의 교육을 위한 동등한 국가 쿼터 할당, 상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교육 분야에서 전공 교육을 위한 재능 있는 학생 파견 및 2020년까지 교육 교류 참여 인원 10만 명까지 증대, 중국에서 러시아어 센터와 러시아에서 공자학원을 포함한 중국어 센터 운영 방식 개선, '청년 리더 100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양자 교류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한 청년 교류 브랜드 창출, '러·중 청년간 오랜 우호에 대한 선언' 조항 이행 촉진 - 선전 모스크바대-베이징이공대 공동대학(Shenzhen MSU-BIT University) 설립 프로젝트 속행, 과학기술 우선 분야의 중요한 공동연구 수행 시 양국 고등교육기관 협회 차원에서 설립된 대학 및 연합 연구조직 지원 - 고품질 교육자원 및 우수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공동 양성에 대한 상호접근 보장, 러·중 청년 기업가 이니셔티브 실현을 촉진하는 러·중 청년 비즈니스-인큐베이터 프로젝트 지원 및 대중화 작업 지속, 혁신 도입 및 새로운 기업 설립을 위한 청년 인력 양성 촉진
문화·예술	- 양국의 전문 예술 단체, 극장,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기관 간 직접적 교류·협력 심화 촉진 - 베이징의 러시아문화센터와 모스크바의 중국문화센터 활동 지원, 지방간 문화교류 강화,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촉진, 문화산업에서 협력의 전면적 분석 수행
대중매체	- 중요한 세계적 사건들의 객관적·전면적 보도 보장을 포함하여 양국 대중매체간 협력 촉진 - 전문 분야 대화 발전, 교류, 주제별 행사 개최를 위한 양국 대중매체의 노력 지원, 양국 국민에게 러·중 문화의 탁월한 성과 보도와 러·중 간 상호협력 및 파트너십 발전에 호의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새로운 대중매체간 전면적이고 다양한 형식의 협력 강화
관광	- 양국 국가기관간 상호협력 활성화, 관광을 위한 여행 시 절차 간소화 조치 시행, 상호 관광 확대 촉진, 관광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 제고, 새로운 유형의 관광 개발 장려 - 관광객의 법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 시장의 조정 및 규제에 관한 권한이 있는 양국 국가기관의 상호협력 발전
체육	- 교류 확대와 협력 심화, 러·중 하계청년대회 및 동계청년대회, 국제 '실크로드' 랠리, '실크로드 배 고등 하키 리그'와 같은 인기 있는 스포츠 대회 개최 - 동계올림픽 준비 관련 협력 강화와 동계스포츠 수준의 공동 제고

자료: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2019. 6.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10).

②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문화 협력 주요 내용과 특징

● 학술·교육 분야

- 학술·교육 분야에서 러·중 협력은 학생 교류, 러시아어 및 중국어 교육 확대, 대학간 교류 및 과학 기술 협력 등을 중심으로 발전
 - 러시아어 및 중국어 교육 확대는 러시아의 중국어 학습자와 중국의 러시아어 학습자 증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공자학원 및 공자학당, 러시아어·문화센터가 중요한 역할
 - 선전시의 모스크바대-베이징이공대 공동대학 설립과 발전은 대학간 교류에서 가장 큰 성과이며, 양국 대학간 공동 캠퍼스 조성, 학술·교육센터 설립, 전문가 양성 등의 협력 진행

● 문화·예술 분야

- 문화·예술 분야에서 러·중 협력은 영화 교류·협력, 번역 및 출판, 전시회 개최, 공연 및 축제 조직 등을 중심으로 발전
 - 영화 교류·협력은 상대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상대국에서의 영화 상영 등 제작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번역 및 출판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러·중 고전·현대문학 작품 번역·출판 프로그램, 민간 주도의 인터넷 번역 공유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상대국 작가들의 작품 번역·출판이 활성화
 - 공연 및 축제 조직과 관련해서는 2019년 러·중 수교 70주년, 2020년 러·중 파트너 관계 설정 25주년, 2021년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 2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행사들이 양국 국민의 주목을 받았지만, 러·중 변경 지역이 개최하는 지방 규모의 축제 역시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

● 대중매체 분야

- 대중매체 분야에서 러·중 협력은 콘텐츠 교류, 공동행사 조직, 공동 플랫폼 조성 등을 중심으로 발전
 - 콘텐츠 교류는 주로 미디어간 콘텐츠 공유, 상대국 미디어 콘텐츠의 자국 내 송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배급 등도 모색
 - 최근 디지털화와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을 이용한 공동 플랫폼 조성, 차세대 기술을 이용한 뉴미디어 발전 논의 등도 활성화

● 관광, 체육, 보건 분야

- 양국은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관광, 체육, 보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 관계의 핵심인 인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국민간 상호신뢰는 물론, 국가간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기반 마련
 - 관광 분야에서 러·중 협력은 그동안 상호 관광객 증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 접근성 제고, 행정 개선 등과 함께 관광상품의 판매 증가 및 홍보를 위한 공공 관광 인터넷 플랫폼 조성 등이 필요
 - 체육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2022~23년 '러·중 체육 분야 협력의 해'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됨과 동시에 러·중 하계 및 동계 청년대회와 같은 기존 행사도 계속 진행
 -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요한 협력 분야로 부상했는데, 양국은 상호 인도적 지원, 방역 조치 시행, 의료진 훈련, 보호장비 생산, 백신 정보 교환 관련 협의를 계속하면서 2020~21년을 '러·중 과학기술 및 혁신 협력의 해'로 지정해 백신 임상실험 수행 경험 공유,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진단 및 치료, 검사, 백신 및 의약품 연구 개발 등에서 협력을 확대

3. 정책 제언

1) '글로벌 중추국가'의 대외적 위상 확보를 위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전략적 차원의 국익 설정

-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안보의 영역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적 측면에서도 자율성의 공간을 가능한 한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

2) 북방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 한국은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기술, 상품, 서비스 등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을 계속해서 육성하거나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북방지역은 천연자원 확보와 기술협력, 북극항로와 환동해 협력, 유라시아 대륙 진출 및 한반도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 지역임.

3) 새로운 국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북방지역 대상 협력 방안 발굴 및 협력체계 개선작업 진행

-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또한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 이러한 다자간 협력 구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교육 및 인적 교류 (전문가 및 싱크탱크)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 확대, 상호 협력체계의 혁신 및 체계화, 정상급 및 고위급 교류의 정례화, 한-중앙아 협력 포럼과 경제협의체 활용을 통한 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등이 북방협력의 주요 추진과제임. **KIEP**